



그레이트 타임

우리의 모든 시간을 은혜로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어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살피시는도다
(시편 33:1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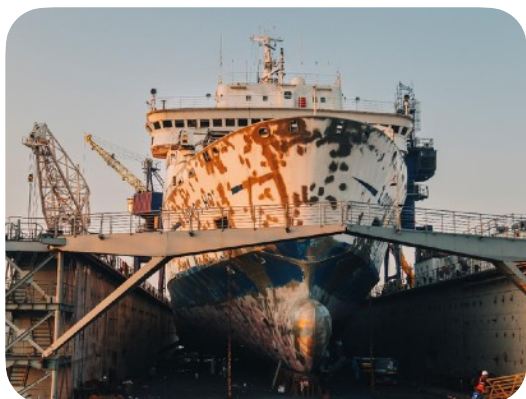


가족 사진 - Dry-dock을 마치고 로고스호프로 돌아오며

샬롬! 한국은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이 되었네요. 저희가 있는 남아공은 한국과는 반대의 날씨로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으로 인해 소식이 늦어짐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지난 4, 5월 신 선교사 가정의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4월 11일 더반 **Durban**에 무사히 도착하였습니다. 지난 항해 때 약 10여분간 엔진 클러치가 프로펠러와 분리되어 거친 항해를 겪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거친 항해를 겪었지만 이 정도의 큰 흔들림은 처음이었는데 기도가 절로 나오고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연결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모두가 감사의 기도로 어려웠던 상황을 종료하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도 선장님과 기관사님들께서 침착하게 이 모든 상황을 기도로 이겨냄을 보고 우리가 주님안에 있음을 더욱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더반 **Durban**에 잘 도착하여 드라이 독 **Dry-dock** 배 정기 보수 및 수리기간을 잘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선내 가족들은 안전한 지역에 숙소를 얻어 드라이독 기간동안 육상에서 생활을 했고 아이들은 2주동안 자체 성경학교를 진행 했습니다. 신 선교사와 다른 아빠들은 **선장, 기관장, 전기장, 보수장, IT 기술자 등등** 수리 중인 배로 매일 출퇴근을 했는데요. 인원이 많아 차량 한대로 다니는 것이 어려워 지자 다른 선교 단체의 제공으로 신 선교사가 따로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이 오래되어서 처음엔 운전하는데 애를 좀 먹었지만 덕분에 이 기간에 출퇴근도 **약 45분** 잘 하고, 지난 3월에 부상을 당한 선교사들의 숙소에서 정기 병문환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필요한 이들의 운전기사로 쓰임을 받아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더반 DORMAC 정비창에
선거 중인 로고스호프



육상에서 진행 된 VBS
로고스호프 여름성경학교



운전했던 흰색 마즈다 차량과 마지막 사진을..
후에 차가 너무 오래되어서 퍼졌다는 후문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팀들의 보고를 받으며

기관장 티멘과 두 딸을 매주
한식 저녁으로 섬기며에드워드와 헤더 단장님 선교사 부부와
강종구, 강소망 선교사 부부와 식탁 교제하며

또한 신 선교사는 흠어져 있는 전도여행팀들이 인사 지원과 문제 해결을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총 24개 팀 90여명이 전도여행을 3주반 동안 보냈기에 여러 일들이 있었고 그 중엔 한 밤 중에 긴급 지원 요청 하는 팀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감사하게도 전원 무사히 은혜 가득한 간증들을 가지고 복귀하였습니다.

도 선교사는 엄마를 전도여행 보내고 아빠는 기관장으로 배에 매일 출근해야 하는 딸 둘을 살피기도 하고 저녁에는 가족들도 초대하여 같이 식사하는 등 요리로 많이 섬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한 것은 숙소가 안전하고 아이들이 지내기에 너무 좋은 장소였어서 아이들에게도 엄마들에게도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좋은 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5월 6일, 시간이 쏠살같이 지나가고 모두 배로 다시 모여 더반 항구에서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스텝 **STEP 3개월 단기선교사 프로그램** 와 짧게 오는 새로 승선하는 가족들의 훈련 그리고 선내 숙소와 쉽 패밀리 **소그룹** 를 정하는 일등으로 신 선교사와 도 선교사는 사역시작과 함께 바쁘게 보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20년간 선교하신 변동식·정금옥 선교사님 **송파사랑의교회 협력선교사님 내외분** 을 만나 함께 교제하며 더반한인교회와 이레교회도 출석하여 한인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과도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반에는 많은 인도인들 그리고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섞여 살고있는 큰 도시로 저희 서점도 그 여느 때보다도 바쁘게 사역을 했습니다. 도 선교사도 다시 패밀리 코디네이터와 재정부에서의 파트타임 일을 시작하였고, 아이들도 학교로 다시 돌아가고 신 선교사는 이전보다 더 바쁜 일정들로 더반에서의 시간은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변동식 정금옥 선교사님 부부의
귀한 섬김을 받았습니다

더반 한인교회에서 말씀으로 섬기며

더반한인교회 교인들에게
선상 투어를 해드리며



감사했던 것은 정금옥 선교사님의 친구분들과 사역하는 흑인 마을 여성 분들에게 배 투어도 해드리고, 함께 여성모임도 하고 한인교회 분들도 배에 찾아와 투어와 이벤트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정금옥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시자맘 어머니들과 선상 투어를 하며



더반항에서 로고스호프를 찾아준 많은 인파



현지 자원 봉사자 송별회 MC 진행을 맡은 도 선교사

더반에서의 사역 중 가장 감사했던 것은 변, 정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여성분들이 저희 배에 와서 여성모임에 참석하였었는데 그분들이 모임을 통해 도전받고 격려받는 시간을 가져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찬양을 멈추지 않을 정도로 좋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있어 가장 큰 보람은 지역교회와 성도들이 저희를 통해 격려와 도전을 받는 일입니다. 부디 이번 항구에서도 저희의 방문을 통해 많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특별히 감사한 것은 남아공에서 예전에 몇년간 살았던 로고스호프 학교 영국 교장선생님의 소개로 개인병원에 연결을 하여 도 선교사의 혈압약 6개월분을 처방받을 수 있어 너무 감사했고, 주안이 또한 치과에 갈 문제가 있었는데 변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좋은 치과에 연결되어 치과진료를 잘 받을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저희는 더반에서 6월 2일까지 사역을 마치고 3일 케이프 타운 항구로 출항하였습니다. 케이프 타운이 남아공의 마지막 항구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지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해주세요

1. 6월, 로고스호프의 항해 증서를 5년만에 갱신합니다. 그래서 수리 기간은 끝났지만 여전히 수리 및 보수해야 할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로 고된 일로 지친 선교사들을 위로 하시고 모든 증서들을 무탈히 갱신 할 수 있도록
2. 더반 지역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케 되도록
3. 더반의 변동식 정금옥 선교사님 그리고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4. 신사랑, 도은혜 선교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주셔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하도록

로고스호프 다음 행선지

남아공. 케이프타운

6월 7일 ~ 6월 25일

나미비아. 알비스만

7월 4일 ~ 7월 28일



QR코드 링크



카카오톡 검색: '신사랑 도은혜 선교사'를 검색해주세요.